

#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김민영\*\*·최현\*\*\*

- I. 들어가며
- II. 제주 이주 현황과 분석
  - 1. 제주 이주 현황
  - 2. 제주 이주의 다섯 가지 유형
  - 3. 제주 이주 전망
- III. 나가며

## 국문요약

2011년 이후 제주 인구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 사회 내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데 반해 변화를 야기하는 제주 이주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할 뿐 아니라 제주 이주에 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이주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제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주 이주 현황을 고찰하였다.

2010년까지 제주 지역의 일반적 인구가동 현상은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현상을 보였는데 제주 이주는 비교적 도시와 농촌 지역에 골고루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장년층과 10대 이전의 인구의 증가률이 높아 가족 단위로 이주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이후 매년 1만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서 2만 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제주에 이주하면서 급속한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 이주의 유형을 (1) 귀농·귀촌 정착, (2) 창업 정착, (3) 문화·예술 정착, (4) 기업이전 정착, (5) 교육 정착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이전 정착과 교육 정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제주 이주가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관계가 있고 이러한 유형의 이주가 현재 제주 이주의 주요 부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을 주요한 가치로 두고 발전해 왔다. 한국의 주요한 가치는 성장주의와 시장주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성장주의와 시장주의가 주류를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제주 이주와 대립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기존의 성장주의와 시장주의 체계를 급변시키지 않고 제주가 환경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 당분간 제주 이주는 지속될 것이다.

주제어: 제주 인구, 순유입, 제주 이주, 이주 유형, 이주 전망.

## I. 들어가며

2015년 6월에 발표된 2015년 5월 국내 인구 이동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sup>1)</sup> 제주도 인구 유입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재 제주의 인구 유입에 관한 총체적인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주 인구 변화와 사회 변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 증가는 단순히 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의 양적 변화만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2010년 이후 제주로의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제주는 도시 확대, 부동산 급등 및 교통량 증가, 토박이와 이주민의 갈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사회의 인구 변화에 관한 연구는 제주의 사회변동을 이해하고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다. 이 글은 최근 5년간 제주 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는 제주 이주의 현황을 살

1) 통계청, 「2015년 5월 국내 인구 이동」, 2015a.

퍼봄으로써 제주 사회의 변화를 탐색하고 있다. 현재 제주 이주에 관한 종합적인 인구조사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제주로의 이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주 이주의 전망을 도출할 것이다. 제주 이주 현황에서 국외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는 일시적 거주에 해당하여 정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고, 결혼 이주인 경우는 정착에 해당하나 기존에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했다.

제주 인구 변화는 제주 지역에 국한된 사회 변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주로의 이주가 급증한 2013년은 수도권에 유입자보다 유출자가 많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출이 발생한 해였다. 탈(脫)도시화 흐름에 영향을 받아 수도권의 흐름과는 반대로 제주는 2011년 순유입이 발생했고 그 후 순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10월까지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6,400여 명으로 2012년 같은 기간 4,300여 명보다 49%나 늘었다.<sup>2)</sup> 서울의 경우 10대와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30대의 도시이탈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 등에 기인한 것<sup>3)</sup>으로 제주 이주가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주의 특성에 맞추어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는 탈(脫)도시화에 따른 리로케이션(Relocation)과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등에 관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같은 논의가 발 빠르게 나오고 있다.<sup>4)</sup>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1, 2천 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귀농·귀촌가구가 2010년에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 2014년에는 44,589가구를 돌파하였다.<sup>5)</sup> 따라서 탈도시 현상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제주 이주 현상을

2) 고미, 「'제주로' 바람 여전히 '후끈' ...순유입 인구 증가 계속」, 『제민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3) 박용규, 「탈(脫)도시화는 시작되는가?」, 『SERI 경제포커스』, 386, 2012.

4) 이홍표, 「탈도시화 시대의 뉴 비즈니스, 틈새시장 '주목'...빈집활용 '활발」, 『한국경제매거진』, 2012년 7월 31일자.

5) 연합뉴스, 「지난해 귀농·귀촌 4만 4천가구...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5년 3

분석하는 것은 제주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변동 현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제주 이주 현황과 분석

여기서는 제주 이주의 현황을 분석·유형화함으로써 이주의 추세를 전망할 것이다. 제주 이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제주 전체 인구를 살펴보았는데,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등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해의 경우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인구센서스가 없는 해의 경우에는 인구동향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인구센서스가 2010년에 있었으므로 현재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집계가 완료된 2014년 인구를 참고하였다. 다만 2014년까지 집계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자료 비교를 위해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자료는 인구 전수조사가 아닌 지역별 인구조사 자료다. 인구센서스인 경우 지역 거주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시행하나, 지역인구 조사인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민을 집계하여 두 자료는 차이가 난다.

### 1. 제주 이주 현황

2010년 이후 제주 지역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2013년인 경우 2010년 대비 14% 급증하였고, 1995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출생아수는 1995년 대비 급감하기 시작하였다가 2014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2000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4년 소폭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체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증가 추세를 보여 제주의 총인구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이 제주로 이주해오는 인구

유입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1> 제주 지역 인구 및 출생아수<sup>6)</sup>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출생아수	사망자수	총인구 증감률*	출생아 증감률	사망자 증감률**
1995	505,095	8,270				
2000	512,541	8,547	2,887	1.5		
2005	530,686	5,673	2,902	5.1	-33.6	0.5
2010	528,411	5,657	3,017	4.6	-33.8	4.5
2013	604,670	5,328	3,317	19.7	-37.7	14.9
2014***	621,550	5,500	3,300	23.1	-35.6	14.3

\* 총인구 증감률 : 1995년 대비 증감률  
 \*\* 출생아 및 사망자 증감률 : 2000년 대비 증감률  
 \*\*\* 2013년과 2014년은 인구전수조사 실시되지 않는 해로 지역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는 547,964명이다.<sup>7)</sup>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총인구가 621,550명이므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는 73,586명 13.4% 늘었다.<sup>8)</sup> 하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율과 사망률이 2005년 이후 비슷한 추세로 유지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조사한 결과 자연 증가한 인구수는 총 45,592명이었다.<sup>9)</sup> 이것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 73,586명과 31,994명이 차이 난다. 따라서 3만 명 이상이 제주 도외에서 유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출입자 통계를 활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된 순유입인구는 총 16,083명이다(<표 2> 참조). 제주로 이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3만 명과 1만 6천 명 정도 차이가 있

6)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2015e;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2015d.  
 7) 통계청, 「시군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2015c.  
 8) 참고로 말하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전국 인구는 8.9%, 제주는 4.6% 정도 인구가 증가했다. 2010년까지 제주인구는 전국인구보다 늦은 속도로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9) 통계청, 앞의 자료, 2015d.

다. 인구센서스와 순유입 인구를 조사한 통계 자료 간에 집계된 인구의 차이는 인구센서스와 순유입인구 인구를 조사하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된다. 순유입 인구가 주민등록에 거주지를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간 전출에서 전입된 인구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인데 반해, 전수조사인 경우 인구를 가호(家戶) 방문조사와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다. 총조사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sup>10)</sup>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순유입 인구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sup>11)</sup> 다음에서는 주민등록에 거주지를 등록하는 순유입 인구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 이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거주지를 주민등록부에 등록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제주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순유입 인구 자료는 비교적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총인구보다 적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연령별 순유입 인구<sup>12)</sup> (단위: 명)

연령 연도	10대 이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총계
2001	259	1	-1495	449	248	72	105	41	-2	-4	-326
2002	468	-58	-1214	564	222	153	69	60	-24	-6	234
2003	211	-338	-1854	376	3	117	51	12	-25	0	-1,447
2004	326	-322	-1035	477	255	126	90	-21	20	1	-83
2005	9	-347	-1009	220	125	99	80	5	14	-1	-805
2006	-238	-342	-1405	-212	38	146	46	16	50	-1	-1,902
2007	-176	-312	-2134	-372	-150	132	55	33	-2	-2	-2,928
2008	-73	-478	-1345	-129	-191	-19	64	-57	-5	-3	-2,236
2009	-29	-324	-1221	298	86	232	-57	24	-10	-14	-1,015
2010	383	-234	-1002	559	311	309	95	36	-14	-6	437
2011	527	30	-874	831	872	580	268	59	48	2	2,343

10) 통계청, 앞의 자료, 201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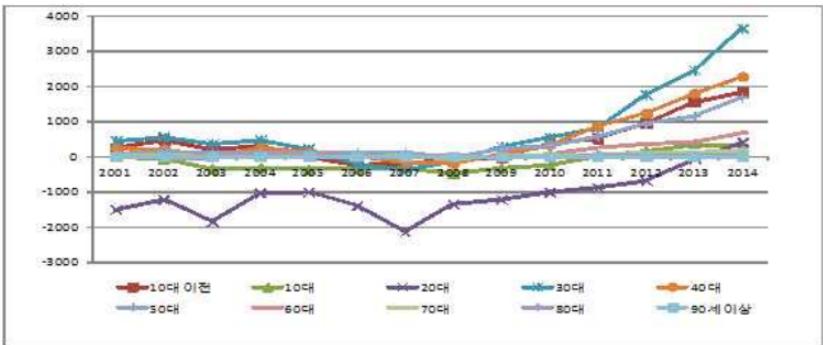
11)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국가통계포털, 2015b.

12) 통계청, 앞의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5b.

2012	964	149	-683	1,768	1,228	938	367	124	19	2	4,876
2013	1,546	352	-70	2,451	1,800	1,164	428	124	21	7	7,823
2014	1,838	335	404	3,651	2,273	1,690	682	194	47	-2	11,112
계	6,015	-1,888	-14,937	10,931	7,120	5,739	2,343	650	137	-27	16,083

제주 유입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유출 인구를 추월했고 순유입 인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과거 제주가 인구 순유출 지역임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제주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주 순유입 인구를 2001년부터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0대가 순유입이 발생한 이후 순유입자가 가장 빨리 증가한 연령대이다. 다음으로 40대 이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의 이주자 가운데 은퇴 후 귀농·귀촌 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청장년층의 이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대 이전의 인구 유입이 세 번째로 많다. 청장년층 세대와 10대 이전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단위로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제주가 새로운 가족 단위의 정착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정착형 이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50대~60대 이주 역시 순유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제주 이주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제주 이주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



<그림 1> 연령별 순유입 인구 변동그래프1) (단위: 명)

다 증가한 2010년 이후 동별 순유입 인구 변동 상황을 살펴보았다. 동별 순유입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를 활용하였다.<sup>13)</sup> 제주도의 연구가 2014년에 완료되어 2013년까지 자료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 순유입 동별 자료를 통계청에서 조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읍면동 이동인구에 관한 자료가 2013년까지만 게재되어 있었다.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2013년까지의 제주도 순유입 인구는 15,039명이다 (<표 3> 참조). 3년간 제주시 순유입 총인구는 전체 순유입 인구의 62.3%인 9,367명이며 서귀포시인 경우 제주시의 절반 정도인 37.7%를 차지하였다.

<표 3> 제주도 순유입 인구 현황<sup>14)</sup>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총계(%)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전입	전출	순유입	
제주시	16,662	15,470	1,192	18,150	15,013	3,137	20,180	15,142	5,038	9,367 (62.3)
서귀포시	6,211	5,061	1,150	7,095	5,359	1,736	8,083	5,297	2,786	5,672 (37.7)
계	22,873	20,531	2,342	25,245	20,372	4,873	28,263	20,439	7,824	15,039 (100)

제주시 읍면동별 순유입 인구 현황을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제주시 도시인 경우 삼도일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일도이동, 노형동이 각각 15.6%, 15.3%로 늘어 전체 제주시 순유입 인구의 30.9%를 차지하였다. 도시 외 지역인 경우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이 인구가 증가하였다.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의 순유입 인구는 총 4,491명으로 제주시 전체 지역 순유입 인구인 9,367명의 47.9%를 차지하였다.

제주시 동지역 인구 비율이 1990년 45%, 2000년 54%, 2010년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제주 지역 인구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반면 제주시 읍면 지역은 1990년 21%, 2000년 17%, 2010년 15%로 계속 감소하였다. 서귀포 지역은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동지역도 1990년 17%, 2000년 16%, 2010년 14%로 감소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14.

14)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그림 2> 제주도 지역별 인구 분포 현황<sup>15)</sup>

하였고 읍면지역은 1990년 17%, 2000년 13%, 2010년 1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제주도 인구의 45%를 차지했던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2010년 61%를 차지하는 등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상당히 심각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이주자들이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에도 비교적 많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인구집중현상이 완화되었다(<표 4> 참조).

<표 4> 제주시 순유입 동별 인구 현황<sup>16)</sup> (단위: 명, %)

제주시	2011	2012	2013	계	비율(%)*	전체비율**
한림읍	210	382	415	1,007	10.8	6.7
애월읍	495	590	713	1,798	19.2	12.0
구좌읍	84	178	212	474	5.1	3.2
조천읍	109	107	331	547	5.8	3.6
한경면	94	347	167	608	6.5	4.0
추자면	-47	-24	-3	-74	-0.8	-0.5
우도면	1	20	36	57	0.6	0.4
일도일동	8	22	1427	1,457	15.6	9.7
일도이동	-106	-1	808	701	7.5	4.7
이도일동	-2	19	22	39	0.4	0.3
이도이동	123	351	356	830	8.9	5.5
삼도일동	-52	10	32	-10	-0.1	-0.1
삼도이동	25	149	12	186	2.0	1.2
용담일동	-26	122	14	110	1.2	0.7
용담이동	-7	-2	60	51	0.5	0.3
건입동	-161	62	26	-73	-0.8	-0.5

1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제주』, 2012.

16)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화북동	-73	-426	120	-379	-4.0	-2.5
삼양동	-56	-37	-292	-385	-4.1	-2.6
봉개동	16	21	27	64	0.7	0.4
아라동	25	137	578	740	7.9	4.9
오라동	31	34	74	139	1.5	0.9
연동	104	252	550	906	9.7	6.0
노형동	152	588	693	1,433	15.3	9.5
외도동	95	166	327	588	6.3	3.9
이호동	6	-9	49	46	0.5	0.3
도두동	-6	36	12	42	0.4	0.3
소계	1,192	3,137	5,038	9,367	100.0	62.3

\* 제주시 순유입 인구 대비 동별 순유입 인구 비율

\*\* 제주도 순유입 인구 대비 동별 순유입 인구 비율

특히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서귀포시 전역에 걸쳐 2011년 이후 순유입 인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전까지 제주시 동지역 인구집중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2010년 제주 지역별 인구 분포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순유입 인구가 전체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의 37.7%를 차지했던 것은 서귀포 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1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순유입 인구가 1,192명과 1,150명으로 거의 비슷했을 정도였다.

<표 5> 서귀포시 순유입 인구 현황<sup>17)</sup>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계	비율(%)	전체비율
대정읍	122	241	196	559	9.9	3.7
남원읍	160	180	276	616	10.9	4.1
성산읍	194	166	309	669	11.8	4.4
안덕면	97	178	213	488	8.6	3.2
표선면	105	125	274	504	8.9	3.4
송산동	-5	203	36	234	4.1	1.6
정방동	73	26	71	170	3.0	1.1
중앙동	-2	43	115	156	2.8	1.0
천지동	31	35	57	123	2.2	0.8
효돈동	24	12	49	85	1.5	0.6
영천동	15	37	53	105	1.9	0.7
동홍동	6	47	249	302	5.3	2.0

17)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서흥동	68	86	152	306	5.4	2.0
대륜동	155	164	155	474	8.4	3.2
대천동	57	169	234	460	8.1	3.1
증문동	29	141	248	418	7.4	2.8
예래동	21	43	99	163	2.9	1.1
소계	1,150	1,736	2,786	5,672	100.0	37.7

## 2. 제주 이주의 다섯 가지 유형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인구 분석을 토대로 제주 이주에 관한 미디어 자료, 간행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주 이주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제주 이주 유형은 먼저 새로운 삶을 위해 정착하는 유형, 문화 및 예술을 위해 정착하는 유형,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삶을 위해 정착하는 유형은 귀농·귀촌 정착과 창업 정착이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문화·예술 정착이 있으며, 세 번째 유형은 기업이전 정착과 교육 정착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 1) 귀농·귀촌 정착

귀농·귀촌 정착은 모두 농촌 지역에 정착한 유형인데,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고자 정착한 유형인 반면 귀촌은 농업 이외에 생업을 하면서 농촌에서 사는 경우이다. 이는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위해서 혹은 건강상 요양을 위해 정착한 경우나 펜션 등을 운영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유형으로 주로 건강과 자연경관이 주요 이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생업 수단은 도시지에 두면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통계청은 총체적인 귀농·귀촌가구에 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귀농은 통계청에서 매년 11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촌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에서 제주의 귀농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의 귀농가구는 전국 귀농가구의 3% 이내로 2014년 전국 농가인구에서 제주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4.4%에 비해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표 6> 귀농가구 현황<sup>19)</sup> (단위: 명, %)

지역	연도	2012		2013		2014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가구수(비율*)		11,220	258(2.3)	10,923	268(2.5)	11,144	306(2.7)
가구원		19,657	491	18,825	492	18,864	558

\* ( )는 전국 대비 제주 귀농가구 비율

<표 7>에 따르면 2012년도 조사된 제주 지역 귀농가구는 143가구로 전체 귀농가구의 55.4%가 도외에서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에는 전체 가구의 64%·9인 174가구가, 2014년에는 62.7%인 192가구가 도외에서 제주로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 귀농가구의 절반 이상이 도외에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도외에서 이주한 귀농가구인의 이주 전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이주한 귀농가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표 7> 제주 귀농 전 거주지역별 전입가구 수 및 전입가구원 수<sup>20)</sup>

(단위: 가구,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율*
		가구	42	20	2	6	2	4	·	·	51		2	1	2	2	4	5	115	258
가구원	82	37	3	15	6	11	·	·	87		7	1	2	6	6	5	223	491	54.6	
가구	64	13	8	10	2	3	5	·	57	2	1	3	2		1	3	94	268	64.9	
가구원	103	20	8	21	3	3	13	·	110	3	2	9	2	1	2	4	188	492	61.8	
가구	68	16	13	10	2	4	2	·	58	3	5	1	2	1	1	6	114	306	62.7	
가구원	106	30	28	21	7	9	2	·	116	5	10	4	7	1	5	9	198	558	64.5	

\* 전체 전입가구수에서 제주 전입가구 수를 제외한 비율

귀농가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귀촌가구 경우는 <표 8>에 따르면 2012년도 75가구에서 2013년도 204가구로 2.7배, 2014년에

18) 통계청, 「2014년 농촌인구 통계」, 2015g.

19)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5.

20)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5.

는 3,569가구로 21배나 급증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활용한 「귀농·귀촌인 통계」인 경우 제주도의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제주도 시내 간 이동을 포함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 창업한 창업 정착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만 파악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관한 자료는 2013년 이전은 총수만 집계되어 파악이 어렵다. 2013년 귀촌가구는 제주시 79가구, 서귀포시 125가구로 서귀포시가 많았으나 2014년도에는 제주시 읍면 지역의 귀촌가구수가 서귀포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제주시 귀촌가구는 1,957가구로 2013년 대비 24.8% 증가하였다.

〈표 8〉 귀촌가구 현황<sup>21)</sup> (단위: 가구, 명)

연도	행정구역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원수	계
2012	제주시	-	-	-	-	-	-	-
	서귀포시	-	-	-	-	-	-	-
	계	24	29	17	4	1	166	75
2013	제주시	-	-	-	-	-	-	79
	서귀포시	-	-	-	-	-	-	125
	계	57	65	53	23	6	493	204
2014	제주시	450	718	561	228	27	-	1,957
	서귀포시	469	463	380	192	81	-	1,504
	계	919	1,181	941	420	108	7,439	3,569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특별히 제주로 이주하도록 만든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농가소득 및 부채에 관해 살펴 보았다. 농가소득을 살펴본 것은 농업이 생업수단일 경우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이주에 작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농가소득과 더불어 농가부채를 함께 살펴본 것은 제주 지역 농가의 실질소득이 높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제주 농가의 소득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면 귀농인 경우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 요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4;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4.

〈표 9〉 지역별 농가소득 및 부채<sup>22)</sup> (단위: 천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순소득*/ 부채**	순소득	부채	순소득	부채	순소득	부채	순소득	부채	순소득
평균	21,826	26,268	23,044	27,210	21,702	26,035	22,713	27,262	25,740	27,363
경기도	25,379	41,392	28,701	42,585	23,790	42,623	29,607	48,931	31,319	45,373
강원도	24,512	26,166	26,759	30,108	23,467	30,665	21,306	29,263	25,913	22,106
충청북도	23,407	20,553	19,268	22,965	20,471	20,740	21,540	23,418	26,817	14,365
충청남도	24,145	27,114	23,320	24,073	18,270	22,656	24,501	19,575	23,303	26,687
전라북도	21,054	19,358	22,567	26,040	22,909	25,661	18,468	25,367	23,353	21,614
전라남도	15,906	19,929	18,188	20,216	21,077	16,718	18,452	18,532	24,170	26,571
경상북도	22,701	20,282	21,017	22,078	18,481	20,303	23,193	21,831	26,302	17,671
경상남도	18,962	32,302	21,276	27,897	25,857	28,927	20,192	26,546	20,475	30,749
제주도	25,604	40,172	34,564	40,539	26,551	31,042	28,546	35,591	32,515	45,221

\* 순소득: 농가순소득, \*\* 부채: 연말기준.

<표 9>에 따르면 제주의 농가소득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부채비율은 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 실제 농가소득은 타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귀농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이주자가 '직접조사'(38.3%)나 '제주에 먼저 이주한 지인'(24.4%)을 통해 제주 이주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sup>23)</sup> 그러나 정보수집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주자가 54.1%로 정보와 경제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의 귀농·귀촌 정착인들은 대부분 제주에서의 경제활동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높은 소득이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면서 제주로 이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도시의 경쟁적이고 경제활동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물질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이러한 동

22) 통계청, 「농가 소득」, 국가통계포털. 2015a; 통계청, 「부채(농가경제)」, 국가통계포털. 2015b.

23)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101쪽.

24) 이 글에서 우리는 소득과 소비의 확대를 추구하는 삶의 지향을 물질주의로 이것으



〈그림 3〉 전국 귀농·귀촌가구의 연령별 분포<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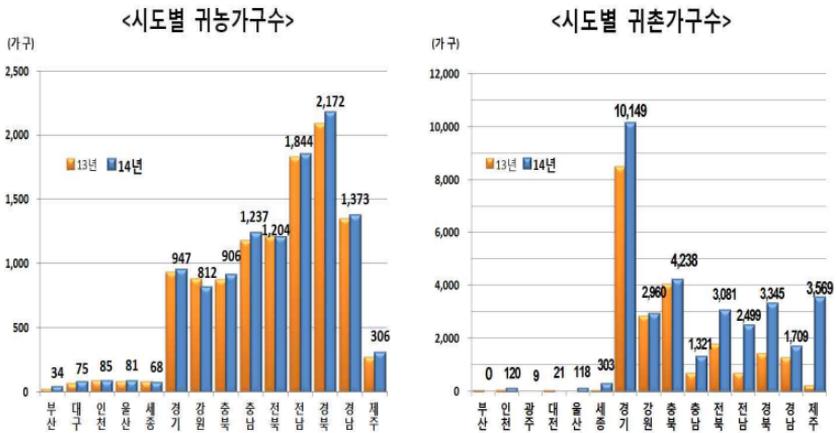
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현상은 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귀농가구는 11,144가구로, 전년에 비해 221가구(2.0%) 증가한 데 반해 귀촌가구는 2014년 33,442가구로 전년에 비해 11,941가구(55.5%) 증가했다. 귀농인 경우는 경북(2,172가구), 전남(1,844가구), 경남(1,373가구) 순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전체의 62.0%를 차지하였다. 전입가구원수별로 보면 1인 전입가구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1~2인 전입가구가 82.9%를 차지했다. 귀촌인 경우는 시도별로는 경기(10,149가구), 충북(4,238가구), 제주(3,569가구)순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51.6%를 차지하였다. 전입가구원수별로 보면 1인 전입가구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1~2인 전입가구가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1~2인 전입가구수 비율이 귀농

로부터 벗어나는 삶의 태도를 탈물질주의로 정의한다.

25)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귀농·귀촌 현황과 과제」, 2015.

의 경우 귀촌의 경우보다 높아 귀촌은 가족단위 이동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6)</sup> 귀농과 귀촌 현상은 연령대와 지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귀농인 경우 젊은 연령층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귀촌은 전 연령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 40대 가구주의 귀촌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림 1>의 제주 순유입 인구 추세와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의 제주 귀촌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 시도별 귀농·귀촌가구<sup>27)</sup>

또한 시도별 귀농과 귀촌 현황을 나타낸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인 경우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귀촌인 경우 경기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나타난다. 더욱이 귀농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제주 지역이 귀촌에서는 3번째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귀촌인 경우 생계수단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인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는 다른 지역보다 멀지만 이동 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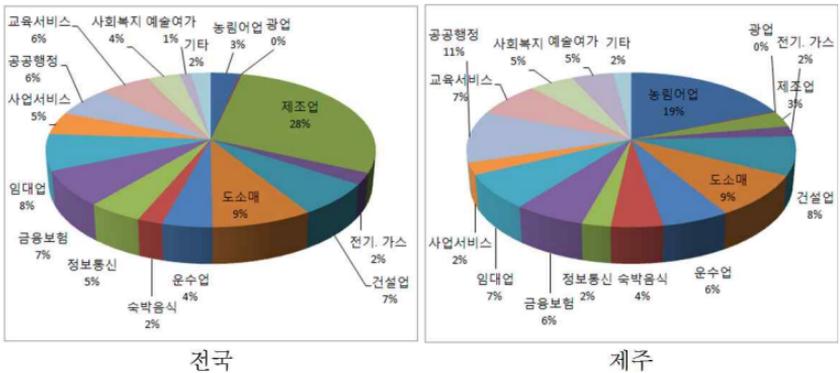
26)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5.

27)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5.

래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설립으로 비행편수가 늘고 요금이 저렴해져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왕래가 과거보다 더 편리해졌다. 결국 귀촌인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창업 정착

창업 정착은 도시와 농촌에 정착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경제활동 수단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되며 게스트 하우스, 카페, 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생활유형이 이에 속한다. 창업 정착인 경우 실제 규모를 조사한 자료가 없으나 <그림 5>와 같이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제주 이주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산업구조 비교<sup>28)</sup>

농림어업이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귀농·귀촌 정착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3년 기준 도외에서 이주한 귀농가구원수 304명이다. 귀촌가구인 경우 도내 간 이동도 포함하여 도외에서 귀촌한 가구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013년 집계된 귀촌가구원수 493명과 도외 귀농 가구원수를 합하면 총 797명으로 2013년 귀농·귀촌 정착에 해당하는 인구는 797명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한편으로 문화·예술 종사자는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경제역량 강화방안』, 2011.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비 신청, 정착 문의 등을 시도한 적극적인 이주민 100명 정도만 파악되었다.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 종사자인 경우 창업 정착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창업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업에만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산업구조를 참조하였을 때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제도적 지원 유형인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업의 종사자수와 학교의 재학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규모가 제한적이다.

제주의 인구가 급증한 데 비해 창업을 제외한 유형들의 인구가 비교적 크지 않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창업 정착이 제주 유입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에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 등이 뚜렷하게 급증한 현상을 통해서도 이 점을 체감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이주자와 마을공동체의 갈등 양상이 보도되고 있다.<sup>30)</sup>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인 2011년부터 사업체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에 급증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인 경우 '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행정시 농정부서가 관리한다.<sup>31)</sup> 2009년 제주도청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민박업체수가 393개, 제주시가 511개로 전체 904개였으나<sup>32)</sup> 2011년도에는 전체 1001개소에 이른다.<sup>33)</sup>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열어 정착한 월정리 해변인 경우 해변 풍경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새로이 카페촌을 구성하였다. 월정리가 위치한 구좌읍인 경우는 2009년도에 39개소에 달하던 민박업소가 2014년도에는 141개소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제주 이주 유형 중 창업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29)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4;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앞의 글, 2015;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글, 2014.

30) 마을 이름을 카페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해 갈등을 빚은 사례 등 그간 풍문으로 들리던 마을과 이주민간의 갈등이 표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허남철, 2015년 6월 18일자).

31) 김석주, 「게스트하우스 통계 없고 관리 제각각」, 『제주경제신문』, 2015년 3월 9일자.

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내 민박업소 현황」, 2010.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도 2011년도 농어촌민박현황」, 2012.

을 제주의 산업구조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림 5>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인 데 반해 제주 지역은 농림 어업과 도소매업이 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반적 특성으로 인해 <그림 6>에서 보이듯이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도 30.0%로 16개 시·도지역 중 전남(33.8%), 경북(30.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제주의 산업구조가 농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산업시설 기반이 낮다는 점에서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영업을 생계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의 경우 귀농가구수가 적고 귀촌가구수가 많다는 것은 관광산업을 중시한 자영업 형태의 창업이 주로 제주에 정착 후 생계수단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6>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sup>35)</sup> (2010~2014년 평균)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제주 이주의 유인으로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개인 소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주 이주가 급증하기 전 2009년, 급증하기 시작하는 2010년과 최근의 자료인 2013년의 지역별 개인소득 및 증감률을 살펴보았다.

34) 제주시청, 「농어촌 민박 현황(구좌읍)」, 2014.

35)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브리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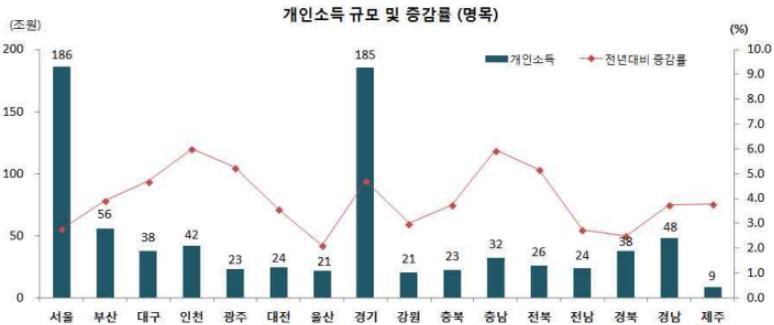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3년



<그림 7> 지역별 개인소득 및 증감률<sup>36)</sup>

36) 통계청, 「2009년 지역소득」, 2010; 통계청, 「2010년 지역소득」, 2011; 통계청, 「2013년 지역소득」, 2014.

<그림 7>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제주 지역의 개인소득 규모는 타도시에 비해 높지 않다. 반면 <표 11>에서 제주 이주가 급증한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전국 지역 평균치와 유사하여 소득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업의 특성상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미리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 이주에는 경제적 여건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 11>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sup>37)</sup> (2010=100, %)

지역명	지 수	등 락 률			지역명	지 수	등 락 률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 기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 기비
전 도시	107.92	0.1	1.1	1.3	충 남	107.93	0.0	0.9	1.2
					(천 안)	107.92	0.0	0.8	1.2
서 울	108.24	0.1	1.2	1.4	(보 령)	107.25	0.1	1.0	1.2
부 산	108.88	0.2	1.3	1.5	(서 산)	108.32	0.0	1.2	1.3
대 구	108.84	0.1	1.6	1.6	전 북	107.85	-0.1	0.9	1.2
인 천	106.76	0.1	0.7	1.1	(전 주)	107.67	-0.1	0.9	1.2
광 주	107.74	0.1	1.4	1.3	(군 산)	108.20	0.0	0.9	1.4
대 전	107.57	0.0	0.8	1.0	(남 원)	107.95	-0.1	0.9	0.8
울 산	107.87	0.0	1.3	1.5	전 남	108.31	0.3	1.2	1.4
경 기	107.56	0.1	1.1	1.2	(목 포)	108.24	0.3	1.0	1.3
(수 원)	107.86	0.0	1.0	1.3	(여 수)	109.02	0.2	1.2	1.6
(성 남)	107.76	0.1	1.2	1.2	(순 천)	107.59	0.3	1.3	1.2
(의정부)	108.03	0.2	1.6	1.8	경 북	107.78	0.0	1.1	1.2
(안 양)	107.54	0.2	0.9	1.1	(포 향)	108.08	0.0	1.1	1.4
(부 천)	107.32	0.1	1.1	1.2	(경 주)	107.43	0.1	0.9	1.1
(안 산)	107.76	0.1	1.0	1.2	(안 동)	107.56	0.2	0.8	0.5
(고 양)	106.84	0.1	0.8	1.1	(구 미)	107.68	0.1	1.4	1.2
강 원	107.57	0.1	0.9	1.1	경 남	107.87	0.1	1.3	1.3
(춘 천)	107.80	0.1	1.0	0.9	(창 원)	107.92	0.2	1.4	1.2
(원 주)	107.57	0.1	0.9	1.2	(진 주)	106.98	0.1	1.1	1.5
(강 릉)	107.31	0.0	0.7	1.1	(김 해)	108.39	0.1	1.1	1.5
충 북	107.90	0.1	1.0	1.2	제 주 도	107.22	0.1	1.1	1.4
(청 주)	107.85	0.1	1.1	1.3	(제 주)	107.07	0.1	1.1	1.4
(충 주)	108.08	0.3	0.6	1.1	(서귀포)	107.91	0.2	1.2	1.3

\* 1월에서 12월까지를 칭함

37) 통계청, 「2013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 2013.

이러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이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인 '제주 살기'(http://jejulife.jeju.go.kr/index.htm)에 게시된 창업 정착 사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제주에서 창업한 이주자들 중 제주도의 조사에 응한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게 벌지만 제주의 환경과 여유 있는 삶이 만족을 가져다준다고 대답하고 있다.

### 3) 문화·예술 정착

문화·예술 정착은 문화 및 예술 종사자가 제주로 이주한 유형이다. 현재 제주 이주를 독특한 현상으로 일컫는 용어로 '문화 이민'라는 표현이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이주자"라는 말은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으나 정책 담당자들과 언론 종사자들에 의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었다. 이것은 경계와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음으로써 오히려 개인적 다양성을 간과하고 분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sup>38)</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가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 신문 기사, 관공서 등에서 편의상 쓰고 있는 '문화 이민'이라는 용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문화·예술 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현황<sup>39)</sup> (단위: 명)

구분	인원(명)	기준년도	자료제공
문화 이주	100+@	2014	제주문화예술재단

38)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 문화다양성-문화예술가의 제주 이주 현황조사』, 2013, 14쪽.

39) <표 12>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착이주민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도의 보고서에는 문화 예술 관련 이주자에 대한 조사 항목이 따로 없다. 그래서 본 보고서의 문화 예술 관련 이주자 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가 이주 조사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하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집계된 데이터는 사업비 신청, 정착 문의 등을 시도한 적극적인 이주민만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파악된 인원보다 실제 문화이주자가 많을 것이라는 보고 문화 이주자 수를 추정치+@로 표기했다(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69쪽). 여기서도 이를 따랐다.

현재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는 없다. <표 12>의 인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비 신청, 정착 문의 등을 시도한 적극적인 이주민만 파악한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수단을 조사하였는데, 응답한 문화·예술 종사자 97명 중 18명(18.6%)이 창업을 병행하고 있었다.<sup>40)</sup> 문화·예술 정착과 앞서 살펴본 창업 정착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유형별 분류를 하기 위해서 향후 창업 정착과 문화·예술 정착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그림 5>의 제주 지역 사업구조를 보았을 때 순수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 정착이 제주 순유입 인구 집계에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제 제주 지역사회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형이다. 현재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벨롱장’ 등과 같은 시골장을 통해 제주 지역 마을 단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서귀포뿔테리충전소’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열어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여 지역사회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리얼 제주 매거진 in’과 다양한 SNS, 블로그 활동 등으로 끊임없이 제주에서의 삶을 미디어에 노출시켜 제주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생성하기도 한다. 벨롱장, 월평리의 문화협동조합, 가시리 창작문화지원센터 활동 등과 같이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간 및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여론에 보고되고 있다. 제주의 콘텐츠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욕구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앞서 살펴본 바처럼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이주가 새로운 제주 이미지의 생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광준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제주 이주는 제주 올레와 같은 관광 콘텐츠가 걷기, 산책, 조용함을 좋아하는 예술가들의 욕구와 부합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거기에 제주 지역의 특수한 거주 형태인 연세, 저가항공의 등장 등의 사회적 요인도 이를 촉진시켰다는 것이

40)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2013, 26쪽.

다.<sup>41)</sup>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제주로 오는 이유를 조사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연구에서도 1순위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13> 참조).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창작활동 대한 욕구보다는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구해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문화·예술 정착의 이주 동기<sup>42)</sup>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기존에 하던 작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12(12.4)	13(13.4)	25(12.9)
제주의 문화적 잠재 가치가 풍부해서	12(12.4)	14(4.4)	26(13.4)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43(44.3)	20(20.6)	63(32.5)
건강·육체적/정신적을 위해서	13(13.4)	20(20.6)	33(17.0)
경제적 여건·생활비, 집값 등이 유리해서	-	4(4.1)	4(2.1)
기타	9(9.3)	12(12.4)	21(11.3)
무응답	8	14	22
응답수	97	97	194

기존과는 다른 삶을 찾아 새로이 정착한 문화·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주 마을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가 변화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주자가 하가리 지역명을 상표 등록하여 분쟁에 휘말린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마을 공동체와 이주자 간의 갈등 양상을 알 수 있다.

(하가리 마을의) 장이장은 “우리 동네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설가 다 예술가다 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 주었더니 집은 엉망으로 만들고 관리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외지인들은 6개월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동네에서 집을 지어 외지인들에게 임차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4가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sup>43)</sup>

41) 이광준, 「예술가들이 제주도로 간 까닭은?」, 『문화/과학』, 81, 문학과과학사, 2015.

42)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2013.

43) 김태홍, 「외지인, 하가리 마을 이름 상표등록...충격」, 『제주환경일보』, 2015년 4월 1일자.

이러한 제주 지역사회 내의 갈등은 문화·예술 정착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 양상도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알려준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공동체와 마을 내 이주 공동체 간의 갈등 및 협력 과정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이전 정착

제도지원에 따른 정착은 기업이전 정착과 교육정착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정착 유형인 기업이전과 교육 정착 인구는 기업 종사자수와 학생수를 통해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업을 마친 뒤 재이주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주 이주의 중요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여기서는 유형의 분류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했다.

기업이전 정착은 다음(daum), 넥슨(nexon) 등 IT기업과 대기업 등이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아 제주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이주 유형이다. 기업이전에 따른 정착은 첨단과학단지 등에 제주 투자를 위한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이전에 따른 이주인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주자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근로자수는 1,42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도외에서 이주한 근로자 수의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4>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 사무실 현황<sup>44)</sup> (단위: 개, 명)

연 도	업 종	도내		도외		신설		합계	
		업체	근로자	업체	근로자	업체	근로자	업체	근로자
2014'3	IT 분야	26	194	27	857	4	16	57	1,067
	BT 분야	19	130	8	106	3	9	30	245
	기타	9	61	7	43	3	13	19	117

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현황」, 20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현황」, 2015.

	합계	54	385	42	1,006	10	38	106	1,429
2015 <sup>1)</sup>	IT 분야	29	215	33	817	7	41	69	1,073
	BT 분야	16	120	10	125	3	11	29	256
	기타	8	50	6	37	4	12	18	99
	합계	53	385	49	979	14	64	116	1,428

5) 교육 정착

제도지원에 따른 정착 유형 중 교육 정착은 제주국제학교 입학 등에 따른 정착이다. 출신 지역에 따라 학생을 세밀하게 분류한 <표 15>의 2014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수는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NLSC Jeju, 영국),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w Hall Asia, 캐나다),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Jeju)에 다니는 학생은 1,991명이다. <표 15>의 자료에서 외국인 학생 213명과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학생 240명(이들 중 일부는 입학 후 제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추정)을 제외한 내국인 학생은 총 1,538명이다.

<표 15>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의 출신 지역 현황<sup>45)</sup>

(단위: 명, %)

구분	시·도	NLCS Jeju	비고	BHA	비고	KIS Jeju	비고
내 국 인	서울특별시	339	※ 내국인 학생 중 제주 비율 11%	206	※ 내국인학생 중 서울 비율 10%	168	※ 내국인학생 중 제주 비율 17%
	부산광역시	53		26		33	
	대구광역시	5		4		9	
	인천광역시	8		5		10	
	광주광역시	13		4		5	
	대전광역시	9		12		11	
	울산광역시	5		2		1	
	경기도	129		97		95	
	강원도	2		11		5	
	충청북도	3		5		4	
	충청남도	6		14		12	
	전라북도	12		2		8	
	전라남도	8		6		5	
	경상북도	5		4		7	
경상남도	11	18	17				

45) 박주선, 「제주국제학교, 10명 중 3명은 '강남 출신」, 박주선의원실, 2014년 9월 28일자.

	제주특별자치도	85	54	101
	유학귀국자	14	38	72
	계	707(622)	508(454)	563(462)*
	외국인	107	77	29
계	1,991	814	585	592

\* ( ) 는 내국인 학생 중 제주도 학생을 뺀 수치임.

<표 16>의 2015년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992명으로 2014년 국제학교 학생수와 큰 차이는 없다. <표 15>에서 외국인의 학생은 213명이다. <표 16>의 185명보다 28명 많다. 또한 교육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1층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학생은 25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15년 국제학교 내국인 재학생수는 1,557명으로 2014년 1,538명보다 19명 증가하여 큰 변동은 없다.

2015년 기준에 따르면 국제학교 내국인 재학생 중 제주 학생은 16%이다. 제주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제주 지역 내에서 입학한 학생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재학 중인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16> 제주국제학교 현황<sup>46)</sup> (2015. 2. 1. 기준)

학 교 명	KIS	KIS고등학교	NLCS Jeju	BHA	합 계
설립주체	제주도교육청	(주)BMJIS	(주)해울	(주)해울	/
개 교 일	2011.9.19.	2013.8.19.	2011.9.26.	2012.10.15.	
대 상	1학년·8학년	9학년·12학년	유치원·13학년	유치원·12학년	
모집정원	728명	408명	1,508명	1,212명	
현 원	402명(55%)	186명(46%)	809명(54%)	595명(49%)	1,992명(52%)
외 국 인	24(6%)	7(4%)	82(10%)	72(12%)	185명(9%)

그러나 외국과 각 지역에서 입학하는 국제학교 특성상 국제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교육을 위해 이주를 한다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46) 도의회, 도의회 내부자료, 2015.

이동보다는 자녀 혼자 혹은 부모 중 한명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임시 거주 형태로 이루어진 유동적 이주일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제주로 이주하였다 할지라도 생계 및 교육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제주로 이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 현실상 특목고를 진학한 학생인 경우 서울의 대학을 진학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졸업 후 다시 이전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정착형 이주와는 맞지 않는다. 결국 국제학교 진학을 통해 제주에 정착한 인구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 3. 제주 이주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인구 증가에서 주목할 점은 계획에 제시된 각종 지표의 목표 인구 달성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sup>47)</sup>

〈표 17〉 2025년 제주 광역도시계획 단계별 계획 인구<sup>48)</sup> (단위: 만명)

구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상주인구	56	58	61	64	66
체류인구	6	8	10	11	14
합계	62	66	71	75	80

통계청 인구조사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는 2000년 51만, 2005년 53만, 2010년 52만 명으로 <표 17>의 계획상 목표 인구보다 낮은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 제주 지역 인구가 62만 명으로 집계되어 현재는 계획보다 더 빠른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상주인구의 증가폭보다 체류인구의 증가폭이 크다는 사실이다. 앞서

47) 이성용, 「제주 인구 증가 추세와 향후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주발전연구원, 2013, 4쪽.

48) 이성용, 앞의 책, 2013.

살펴보았듯이 제주의 인구 조사에서 집계된 순유입 인구와 주민등록상의 순유입 인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천명에 달하는 제주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제주로 매년 들어오는 인구는 순유입인구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인구조사 기간에 집계되지 않는 단기 체류인구를 감안하면 제주의 유동인구 수는 상당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점차 늘어나는 단기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에 사는 유입인구를 고려하면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은 제주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의 인구 유동성을 연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사회체계를 계획, 구축할 필요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주 이주 동기에 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처럼 제주 이주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삶의 지향 변화라는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소득과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소득과 소비가 줄더라도 안정되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주자들의 가치관인 것이다. 각종 조사 및 출판 간행물,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제주 이주의 중요 요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 지원 정착인 기업이전 정착과 교육 정착을 제외하고는 귀농·귀촌 정착, 창업 정착, 문화·예술 정착 모두 제주로 이주에는 경제적 요인보다 도시생활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작용했다.

제주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출판계와 미디어에서도 제주 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발간된 제주 관련 도서는 15권에 달한다. 과거와 달리 제주 여행기뿐만 아니라 제주 이주에 관한 안내서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평가이다.<sup>49)</sup> 이 글에서는 제주에 관한 도서 중 제주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두 권을 선정하여 이주 원인을 살펴보았다.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인터뷰한 『제주에 살어리랏다』와 『거침없이 제주이민』의 인적 구성과 이주 동기를 분류하면 <표 18>과 같다.<sup>50)</sup>

49) 민병선, 「“제주도로 떠나세요”…출판계 ‘제주왕이’ 왜?」, 『동아일보』, 2015년 8월 11일자.

〈표 18〉 이주도서에 나타난 제주 이주민의 인적사항<sup>51)</sup>

연번	인터뷰이	성명	나이	직업	입도 년수	귀환	이주 이유
1	ㄱ-1	비씨	39	게스트하우스	3	O	직업
2	ㄱ-2	김기철	40	무인카페	3	O	사업실패, 새 삶의 기회
3	ㄱ-3	박범준	39	도서관	6	O	도시 삶의 회의
4	ㄱ-4	홍창욱	36	프리랜서	3	O	자연 풍경
5	ㄱ-5	이기호	47	게스트하우스	5	O	사업실패, 새 삶의 기회
6	ㄱ-6	권혁란, 김경화	60,60	카페	3	O	은퇴, 새 삶의 기회
7	ㄱ-7	최형석	40	공인중개사	9	O	사업실패, 새 삶의 기회
8	ㄱ-8	김영임	42	농장	11	O	도시의 답답함
9	ㄱ-9	이인경	47	레스토랑	3	O	자연풍경
10	ㄱ-10	박성훈, 원은희	40,31	만화가	3	O	경쟁에서 벗어난 교육
11	ㄱ-11	로사, 모니타	43,46	사회복지시설		일부	자연풍경
12	ㄱ-13	박하재홍	34	민박집, 래퍼	2	O	자연풍경
13	ㄱ-14	이기영	38	제다사	8	O	직업
14	ㄱ-15	남시영	53	사회복지시설	14	O	직업
15	ㅅ-1	박진창아	45	도서관	3	O	여유로운 삶
16	ㅅ-2	함주현, 최정은	34,32	게스트하우스	2	X	도시의 답답함
17	ㅅ-3	최은별	36	카페	1	X	말이 통하는 외국
18	ㅅ-4	이겸	44	사진작가	1	X	도시 삶의 회의
19	ㅅ-5	디아나, 바비아	39,35	카페	8	X	치유
20	ㅅ-6	고춘리	58	이장	11	O	도시 삶의 회의
21	ㅅ-7	이진원	55	라면집	2	X	제주바다
22	ㅅ-8	공민식	53	공예작가	3	X	제주바다
23	ㅅ-9	김강태	37	수중촬영 전문가	3	X	제주바다
24	ㅅ-10	육충현	39	게스트하우스	2	X	여행의 일부

〈표 18〉의 인물들을 통해 제주 이주의 동기를 살펴보면 교육이나

50) ‘ㄱ’은 『거침없이 제주이민』, ‘ㅅ’은 『제주에 살어리랏다』를 표기한 것이다. 『거침없이 제주이민』의 인터뷰이 중 제주시에서 농촌으로 귀촌한 사례를 제외하였고 『제주에 살어리랏다』인 경우 입도인이 아닌 제주의 해녀를 만난 사례를 제외하였다. 연령은 출판년도를 감안하지 않고 책에 나온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주 유형 및 이주 원인 표기는 필자가 분류하였다.

51) 기락, 『거침없이 제주이민』, 꿈의 지도, 2012.

직업과 같은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이주한 사례는 드물다. 그보다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기존의 거주 공간을 떠나왔다고 상당수의 응답자는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여유롭고 느린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 정착 주요 이주 동기인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와도 상통한다. 또한 귀농·귀촌인 중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제주특별자치도<sup>52)</sup>의 연구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한 이주 동기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높은 응답 동기는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해서’와 ‘제주의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제주로 이주해온 귀농·귀촌인의 이주 전 거주 지역은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서울과 경기도가 많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다’는 응답은 일차적으로 도시 생활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주의 읍면동별 순유입 인구 증가 조사에서 이주 후 정착하는 지역이 제주의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많았던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대 대도시의 삶에 대해 짐멜은 이렇게 설명했다. ‘도시의 삶은 생계를 위한 투쟁을 자연과의 투쟁으로부터 사람을 둘러싼 투쟁으로 전환시켜 ‘고갈되지 않는 수입의 원천을 발견하기 위해, 또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기능을 찾기 위해 자신의 성과를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생겨난 사회다. 이러한 필연성으로 인해 대중 내부의 개별적 차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도시는 개별화를 촉진시킨다.<sup>53)</sup> 현대사회는 짐멜이 산업화한 근대 도시를 분석할 때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규모가 더욱 거대해졌다. 대도시는 일국적 차원을 떠나 국제적인 메가시티(mega-city)로 변모하고 있고 국경이나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복잡한 도시의 삶은 매혹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투쟁은 사람을 지치고 좌절하게 만든다. 이에 도시를 떠나 새로운 대안적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다. 제주 이주는 이러한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52)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77쪽.

53)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49쪽.

도시의 삶이란 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 막히는 경쟁이 있잖아요, 수백만 원을 벌어도 모자란 것이 도시 생활이에요. 돈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구조 아닌가요? <스.3>

이 응답자의 말처럼 제주 이주는 자연친화성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반(反)도시문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 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병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적 실천 현상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물질적 욕구를 무한정 추구하지 않고 일상의 여유, 즉 자신의 내면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중요하다. 물론 안정적인 소득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윤택함이나 소득 증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적더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한다는 점에서 탈물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는다. 따라서 제주 이주는 한국 사회의 대안적 사회와 새로운 삶의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제주 이주가 경제적 요인보다 도시 생활에서의 탈피라는 일차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주류 가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최현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인간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sup>54)</sup> 시장인간은 '시장사회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 조건으로부터 생성된 왜곡되고 불구화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시장인간의 형성은 전후 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6·25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성장제일주의'를 목표로 사회를 재건해 나갔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주의는 시장주의로 담론을 형성하고 제도화해 나갔다. 성장주의와 시장주의는 경제적 부를 확대하는 것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시장주의는 실업과 해고, 사회안정망의 붕괴 등을 통해 시민들을 시장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시장사회로의 전환은 시장인간을 양산하고, 시장인간의 양산은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이제 시장인간의 양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건이 되었다. 제주 이주는 시장인간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인적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4) 최현, 「시장인간의 형성-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81, 2008.

다시 말해 제주 이주 형태는 개인별로 다르고 동기가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무엇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 이주자가 경제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탈물질적 가치 지향이 전혀 없다면 이동 거리가 멀고 생활방식과 문화가 독특한 제주로 이주할 가능성이 적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 서울이나 경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귀농과 귀촌의 경우에도 경제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곡창지대나 대도시 근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높은 교육 기회 등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성을 포기하는 일은 어렵다. 따라서 제주 이주는 한국 사회를 휩쓴 돈에 대한 숭배와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의의 표현이며, 대안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다. 한국 사회가 기존의 성장주의와 시장주의 체계를 급변시키지 않는 한 또 제주가 여유로운 생활과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 제주 이주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 이주를 대안적 삶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제주가 살기 불편하거나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제주로 이주해온 이주자들 중 일부는 제주를 떠나고 있다. '이민 실패'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제주 사회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다. 생활방식의 차이로 원주민과 이주자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하고 있다. 제주 이주는 단순히 제주 사회 내의 인구 유입과 증가가 아니며 제주 사회 변동의 중요 요인이면서 한국 사회 변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제주 이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Ⅲ. 나가며

제주 이주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기초 자료를 활용해 제주 이주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2011년 이후 제주 순유입 인구는 제주의 인구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 이주에 중장년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10대 이전의 순유입 인구도 늘어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별 순유입 인구 변화를 통해 제주 이주가 제주시 동지역 인구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도외에서 제주로 오는 이주가 농촌 지역, 특히 서귀포시 농촌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 이주의 유형을 (1) 귀농·귀촌 정착, (2) 창업 정착, (3) 문화·예술 정착, (4) 기업이전 정착, (5) 교육 정착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귀농·귀촌 정착 모두 제주 이주가 증가하였다. 특히 귀촌은 귀농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귀농이 전국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데 반해 귀촌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문조사와 지역별 농가소득 및 부채 등을 참고하여 귀농·귀촌 정착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55)</sup>

창업 정착인 경우는 직접적인 인구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민박업수의 증가 추세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주 산업 구조와 지역별 개인 소득 증감률, 정착 사례 등을 분석해 귀농·귀촌과 마찬가지로 창업 정착 역시 제주 이주에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문화·예술 정착은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관해 조사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자료가 있다. 이를 토대로 유입 인구와 이주 요인을 파악하였다.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 종사자의 수는 적으나 '문화 이민'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그 영향력으로 인해 주요한 이주 유형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례 등을 통해 문화·예

55)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책, 2014.

술 정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유형 역시 제주 이주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적 정착 유형인 기업 이전과 교육 정착 인구는 기업 종사자수와 학생수를 통해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학생의 경우에는 장기적 정착가능성도 거의 없다.

제도적 정착 유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제주 이주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도시 생활에서의 탈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주류 가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주 이주는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 이에 한국 사회가 기존의 성장주의와 시장주의 체계를 급변시키지 않고 제주가 환경적 장점을 유지하는 한 당분간 제주 이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살이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생활방식의 차이로 지역주민과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 내에서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제주』, 국토지리정보원, 2012.
- 기락, 『거침없이 제주이민』, 꿈의 지도, 2012.
- 김경희·정화영, 『제주에 살어리랏다』, 청어람미디어, 2012.
- 이광준, 「예술가들이 제주도로 간 까닭은?」, 『문화/과학』, 81, 문학과학사, 2015.
- 이성용, 「제주 인구 증가 추세와 향후 과제」, 『제주발전포럼』, 47,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 문화다양성-문화예술가의 제주 이주 현황조사』, 제주 문화예술재단,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4.
- \_\_\_\_\_, 『제주지역 경제역량 강화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1.
-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 최현, 「시장인간의 형성-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8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 저널 및 신문기사

- 고미, 「'제주로' 바람 여전히 '후끈' ...순유입 인구 증가 계속」, 『제민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03>
-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귀농·귀촌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석주, 「게스트하우스 통제없고 관리 제각각」, 『제주경제신문』, 2015년 3월 9일자. <http://www.jeju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6>
- 김태홍, 「외지인, 하가리 마을 이름 상표등록...충격」, 『제주환경일보』, 2015년 4월 1일자.
-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통계청, 2015.
- \_\_\_\_\_,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통계청, 2014.
- 도의회, 도의회 내부자료, 2015.

- 민병선, 「“제주도로 떠나세요”…출판계 ‘제주앓이’ 왜?」, 『동아일보』, 2015년 8월 11일자.
- 박용규, 「탈(脫)도시화는 시작되는가?」, 『SERI 경제포커스』, 제386호,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7월 17일자. <http://magazine.hankyung.com>
- 박주선, 「제주국제학교, 10명 중 3명은 ‘강남 출신’」, 박주선의원실, 2014년 9월 28일자.
- 연합뉴스, 「지난해 귀농·귀촌 4만4천가구…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5년 3월 19일자.
- 이홍표, 「탈도시화 시대의 뉴 비즈니스, 틈새시장 ‘주목’…빈집활용 ‘활발」, 『한국경제매거진』, 2012년 7월 31일자. <http://magazine.hankyung.com>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현황」, 2014.
- \_\_\_\_\_,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현황」, 2015.
- 제주시청, 「농어촌 민박 현황(구좌읍)」,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살기. <http://jejulife.jeu.go.kr/index.htm>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4.
- \_\_\_\_\_, 「제주자치도 2011년도 농어촌 민박 현황」, 2012.
- \_\_\_\_\_, 「서귀포시 관내 민박업소 현황」, 2010.
- 통계청, 「농가 소득」, 국가통계포털. 2015a. [kosis.kr](http://kosis.kr)
- \_\_\_\_\_, 「부채(농가경제)」, 국가통계포털. 2015b. [kosis.kr](http://kosis.kr)
- \_\_\_\_\_, 「시군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국가통계포털, 2015c. [kosis.kr](http://kosis.kr)
- \_\_\_\_\_,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2015d. [kosis.kr](http://kosis.kr)
- \_\_\_\_\_,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2015e. [kosis.kr](http://kosis.kr)
- \_\_\_\_\_,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2015f. [kosis.kr](http://kosis.kr)
- \_\_\_\_\_, 「2014년 농촌인구 통계」, 2015g. [kosis.kr](http://kosis.kr)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5. <http://meta.narastat.kr/>
- 통계청, 「2015년 5월 국내 인구 이동」, 2015a.
- \_\_\_\_\_, 「국내 인구 이동 통계」, 2015b.
- \_\_\_\_\_, 「국내 농촌인구 통계」, 2014.
- \_\_\_\_\_, 「2013년 지역소득」, 2014.
- \_\_\_\_\_, 「2013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 2013.
- \_\_\_\_\_, 「시군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제주특별자치도, 2012.
- \_\_\_\_\_, 「2010년 지역소득」, 2011.

\_\_\_\_\_, 「2009년 지역소득」, 2010.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브리프」,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5.

허남설, 「관광객 몸살·이주민 갈등…제주도 ‘아, 옛날이야’ EBS ‘하나뿐인 지구」,

『경향신문』, 2015년 6월 18일자. <http://news.khan.co.kr/>

Abstract

## Internal Migration to Jeju-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Kim, Min-Young\*·Choe, Hyun\*\*

The Jeju population has rapidly increased since 2011, and there have been numerous profound changes in Jeju society. Yet systemic research on domestic immigrants in Jeju is not available. Therefore, we make an effort to review and prospect domestic immigration by collating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references in this paper. In doing so, this paper shortly demonstrates recent migration trends in Jeju and considered the realities attached to it.

By 2010, Jeju population tends to concentrate in “dong”(administrative districts) of Jeju city, while the number of migrants at rural places is similar to those at towns. The proportions of middle-aged adults, and children under 10 were higher than other ages. This higher migration rates mean migrants moved to Jeju with families. The rapid increase of population brings a number of changes in society. Jeju popul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by about one or two million migrants every year since 2011. So, Jeju is facing demographic change. This paper categorized

---

\* Lead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migrants into five types as (1) those who return to farming or rural life (2) small business owners (3) cultural workers (4) employees on secondment (5) students. In this typology, the former three types are the main groups of migrants. With the exception of employees on secondment and stud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gration to Jeju is related to non-material values.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has adopted policies that have stimulated economic growth and achieved rapid development. “Developmentalism(ideology regarding economic development as the most important goal of a society)” and “marketism(discourse for marketization)” have become the core values of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growing numbers of migrants have moved to Jeju in order to resist against marketism and dream another life. The core values of South Korea are contrary to the non-material values of internal migration flow. Jeju must continue addressing demographic change for the present.

Key Word : Jeju population, net influx of migrants, migration to Jeju, types of immigration, immigration potentials.

교신 : 최현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wnuni85@gmail.com)

논문투고일 2015. 08. 31.  
심사완료일 2015. 10. 12.  
게재확정일 2015. 10. 17.